

자동차용 화학제품 품질검사 강화

기술표준원, 품질불량 부동액 2개 KS인증 취소 ... 워셔액은 통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2개 제조기업의 KS 품질표시 자동차용 부동액과 워셔액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2개의 부동액에 대해 KS표시 인증을 취소했다.

2005년 시판제품 조사는 KS표시 인증을 받은 20개의 부동액과 12개의 워셔액으로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워셔액은 전품목이 합격했으나 부동액은 2개 제조기업 제품이 <금속에 대한 부식> 기준 항목에서 미달돼 불합격됐다.

KS인증제품 검사항목에 있는 부동액의 품질시험 주요 항목은 어는점, 금속부식성 등 11개 항목이며, 워셔액은 어는점, 금속부식성, 고무에 대한 영향 등 12개 항목이다.

부동액의 규격 중 금속부식에 대한 기준이 미달되면 라디에이터(Radiator) 자체가 부식돼 손상되기 때문에 자동차엔진이 과열되고 차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워셔액은 차량운행 중 자동차 유리창이 동결돼 시야가 흐려져 운전 장애를 일으키거나 금속, 고무 등에 대한 부식성 때문에 차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03년 조사에는 KS 표시 35개 중 29%인 10개, 2004년에는 30개 중 13%인 4개, 2005년에는 32개 중 6%인 2개가 불합격돼 불량제품 수는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2006/01/04>